

머리말

“현대 산업문명과 일상적 삶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이란 주제로 꾸며진 이번 호는 3편의 주제논문, 1편의 일반논문, 2편의 서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논문은 조용훈 교수의 “현대 소비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글에서 저자는 소비사회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물질관, 새로운 소비문화의 형성과정에 모범을 보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논문인 “Technology and Anti-Technology - Theoretical Reflection on the Information Age”는 캐나다의 우수한 기독교대학 중의 하나인 Redeemer College의 MacLarkey 교수가 보내온 글로써, 정보화 시대라고도 불리우는 현대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한 비평들을 소개, 평가하고 있는 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정보의 과부하, 인간의 고용기회 축소 등을 주로 지적하는 반과학기술적 비평들마저도 그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약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인 양성만 교수의 “현대와 기독교적 인식론”은 현대인의 삶에서 인식론이 갖는 중요한 역할과 함께,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인식론을 갖추어야 할지를 프랜시스 웨퍼 박사의 논의에서 출발, 전개하고 있는 글이다. 웨퍼 박사는 일찍이 현대 서양문화의 부흥과 쇠퇴를 분석하면서, 서구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이기로 결정한 결과, 그들이 막바지에 도달한 것은 이성으로부터의 도피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저자는 이 결론에서 출발하여,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성이 어떤 인식론을 가져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일반논문인 “인격주의 신학에서 본 인격 의학의 이해”라는 문명선 선생의 글은 하인리히 오토의 인격주의 신학과 폴 투르니에의 인격 의학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글이다. 폴 투르니에는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의 미비점이 영적인 측면의 간과임을 간파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애썼는데, 이와 같은 폴 투르니에의 시도는 자신의 신학에 인격주의의 철학적 사고를 접목시킨 하인리히 오토의 시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저자는 이와 같은 학문적 바탕을 기반으로 한 의학과 신학이 상호 연구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첫번째 서평은 장 그르니에의 “일상적 삶”에 대한 김봉균 교수의 서평이다. 서평자는 이 책이 ‘일상의 비밀상성’을 체험케 하고 반복되는 일과 함께 망각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적 인간의 정체성을 되문케 한다고 소개한다. 이와 동시에 서평자는 실증주의자인 장 그르니에가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점들도 기독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서평은 데이비드 크루저의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김건주 선생의 서평이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직업세계 내에서 겪게 되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라고 서평자는 본서를 소개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에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도 함께 논하고 있다.

처음 해 보는 비전공 분야의 편집일이어서 이번 호의 발간이 매우 지체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세 편의 주제논문들은 물론이고 두 편의 서평들도 이번 호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된 귀한 글들이어서 어느 정도 균형잡힌 33호가 된 것을 감사드린다.

1998년 9월

전진우